

장진기 / 김은경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소식

P.O.Box 0332, Kampong Cham, Cambodia
E-mail: changjinkee@gmail.com / keksk21@gmail.com

Tel: 855-97-807-1720(장진기) / 855-10-301-602(김은경)
070-7569-9088(인터넷전화)

2017년 6월 8일
26번째 선교편지



샬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가정과 사역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관심과 사랑, 그리고 기도로 늘 함께 해주시는 모든 선교동역자님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지난 4월, 지민이의 정기검진과 재활치료를 위한 교육을 받기 위해 임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검진소견에서 심장은 잘 유지되고 있으며, 인지 및 행동발달도 전보다 좋아졌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이어지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와 영광을 돌리고, 항상 기도로 함께 동역해주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민이 소식은 가정의 소식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일정시 부족한 가정을 사랑해 주시고 베푸시며, 섬겨주심에 받은 사랑이 너무 커 송구할 따름입니다.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동시에 이곳에서 그 사랑을 다시 베푸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그간의 소식을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전합니다.

☞ 교회사역

[생활을 위해 도시로 떠나는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마다 가정에 보탬이 되기 위해 삶의 현장으로 나오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출국 전, 중고등부를 위한 예배를 계획하던 터라 '조금만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다가갔더라면...'이란 생각에 그들을 말씀으로 붙잡지 못한 제 자신에게 먼저는 실망과 후회, 그리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며, 동시에 떠난 이들이 그들의 위치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활절 콘테스트 및 2부활동] 매년 부활주일을 맞아 진행하는 부활달걀 콘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각자 최선을 다해 보다 예쁘게 꾸민 달걀이기에 누가 더 잘했고 누가 더 못했다는 판단은 어렵지만, 서로의 최선에 응원하며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부활주일 행사를 위해 함께 수고해주신 윤종현/남민정 집사님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 건기의 끝자락을 맞아 시원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유년부 이하 어린이들의 물놀이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아이들 최고의 놀이” 가지고 있던 수영장 풀이 찢어지는 탓에 아쉽게도 하나의 풀에서만 놀이를 진행했지만, 그래도 좋다고 물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라도 있어 감사합니다.

[대지구입준비현황] 대지 구입을 위한 예산 5만불 중, 현재 80%에 해당하는 4만불이 모금되었습니다. 대지 구입을 결단하고 올해 초, 구입을 목표로 준비하였던 사항이지만, 결단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결정임을 알기에 그 결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지인되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관심으로 여러 조언을 듣고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신중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학교지원사역 & 한국어 방과후교실

[현지학교 지원사역] 지난 학교장과의 면담에서 국내일정을 마친 5월부터 한국어 방과후교실과 유치원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수업지원을 논의면서 돌아온 후, 진행될 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여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정규수업 지원불가란 높은 현실의 벽에 부딪치면서 유치원 교육지원에 대한 준비를 잠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한국어 방과후교실 오픈은 정상 진행하기로 논의된 것입니다. 현재 6월 12일 첫 수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사역을 위해 동역자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한번에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만큼 더 기도의 제목이 줄어들고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끈이 줄거나 끊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 가정의 소식

[말씀으로 여는 가정] 지훈이가 스스로 한글을 읽기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지아와 함께 성경읽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복음서를 읽고 있는 지아와 지훈이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보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종된 자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Homeschooling] 국내 일정시 홈스쿨링 교재(지아: 3학년 / 지훈: 2학년)를 배송 받아 다음 학기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매번 새 학기를 맞이할 때면 전보다 많은 수업 양에 한동안 적응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전보다 적응도 빨라져 감사합니다. 다만, “영어는 할 줄 아는데, 영어를 모른다.”는 지아의 말을 들으며, 지아와 지훈이 모두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또한, 각기 다른 학년과정을 공부하고 있는 두 명의 자녀를 케어하는 아내 김 선교사에게도 지혜를 구합니다. 바라는 것은 김 선교사와 지아, 지훈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홈스쿨링 교사를 붙여주시길 소원합니다.

[지민이의 건강소식]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지민이의 심장은 잘 유지되고 있고, 인지발달에서는 13개월 차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전 받았던 소견(7개월차)에 비추어 볼 때, 기간만큼 성장한 지민이를 보니 힘든 환



경에서도 잘 자라준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만, 검진 당시의 지민이가 30개월차라는 점을 미루어보면, 부진한 17개월이란 기간이 병원에서 지낸 동안 어린 지민이가 받았던 내적 상처의 크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부모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육적 상처만이 아닌 내적 상처도 함께 치유되는 지민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아직 20도 정도 덜 퍼진 지민이의 다리를 놓고 재활치료(운동)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하면서 추가된 치료의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처음 접하는 치료(운동)를 견디기 힘들어 자지러지는 지민이를 보면서 마음이 약해져 쉽사리 치료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민이가 치료를 잘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구합니다. 위해서 기도부탁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현 상태로도 서고 걸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지민이가 곧잘 걷기 시작하면 좀더 원활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힘줄을 늘려주는 수술을 받을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발달에서는 전혀 발달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걱정입니다. 아이마다 말이 트이는 것이 시기가 다를 수 있기에 '언젠가는 트이겠지!'하며 지민이의 언어습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마마" 혹은 "바바"도 못하는 33개월차의 왜소한 체구지만, 지민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사모하며 양육합니다. 지민이의 언어발달을 위해 기도부탁 드립니다.

👁 기도제목

[대지구입] 마을 부지의 공터를 허락하소서. 공터가 '기도의 터'가 되게 하시고, '배움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대지구입비용의 80%가 채워짐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겠나이다.

[교회사역]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이전한 장소에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이웃을 섬기고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언어학교] 잘 가르치는 것만큼, 수업을 빠지지 않고 끈기 있게 가르치며, 수업이란 약속을 지키는 신뢰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어학교사역이 추후 학교사역의 그 초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학교지원]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갑시다. 새롭게 진행될 교육사역을 위해 지혜를 구합니다. 교육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가정을 위해]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지민이의 건강과 언어, 행동발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정되게 하옵소서.

[세청단기팀 사역을 위해] 7월 방문할 세광교회 청년부 단기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사역을 위해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시옵소서.